

발행인 칼럼

변화의 물결 앞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 신문이 '미주크리스천신문'이다 보니 많은 독자들이 미국 이민자들이다. 이민자들이라면 이미 큰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살아가는 나라가 바뀌고 이웃이 달라지고 언어가 새로워진 곳이 이민 땅이다. 영원히 고유(固有)할 줄 알았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여러 변화를 즐기며 지내 온 이민자도 있고 이런 변화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낸 분들도 있으시리라. 그렇다. 변화는 기대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변화를 아예 거절하거나 그대로의 상황에 안주(安住)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세상은 수없이 변한다. 나쁜 의미의 변질도 있고 좋은 의미의 변화도 있다. 변화의 물결을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물론 변화의 수용이란 변화의 물결 앞에 무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밖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물결 앞에 나의 선택이라는 역할은 매우 크다.

최근에 놀라운 변화를 몰고 온 것들이 있다. 정말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되었던 드라마 '전원일기'의 출연진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된 박윤배씨가 TV에 출연해 그동안 자기와 함께 연기했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디지털 휴먼 기술로 고(故) 박윤배씨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생시켜 스튜디오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대화의 내용과 고인(故人)의 감정표현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만약에 현대그룹의 고(故) 정주영 회장이 출연하여 이곳의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그의 명언(名言) 중의 명언으로 손꼽히는 '이봐, 해봤어'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그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이봐, 해봤어'라는 말은 변화의 세상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임이 틀림없다.

모든 현대인조차 놀라게 하는 또 다른 변화는 인공지능 대화의 기능을 가진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이다. 지난달 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부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챗GPT를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도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과 툴(Tool)에 대해 익히고 공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자신도 2023년 신년사를 챗GPT에 써보라고 했더니 몇 자만 수정하면 그대로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될 정도로 잘 작성되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챗GPT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준다. 학교 숙제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까지 써줄 챗GPT는 교육현장을 매섭게 유린(蹂躪)할 것 같다. 챗GPT는 교육뿐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 그리고 영적인 일들까지 '내게 말거라'며 나설 참이다. 챗GPT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설교문을 만들어 주리라. 이런 변화의 물결을 공의로운 선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모든 변화는 마침내 비윤리(非倫理)적 면모만을 보일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자. 변화하는 세상만 핑계하지 말자. 변화 앞에 당당한 나의 선택이 그 변화를 멋지게도 만들고 추하게도 만들 것이다. 단언컨대 세상의 변화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나의 선택임이 분명하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활동의 결정적인 요소(2)

CT, 아주사퍼시픽대학 정수진 교수의 무속신앙의 토양에서 자란 한국기독교의 씨앗

하나님을 한국어로 명명하다

한국에서 '하나님'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정하는 것 또한 선교사들이 무속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일부 선교사들은 무속신앙에서 가장 높은 신이나 '천국의 왕'을 지칭하는 하나님과 같은 전통적으로 신성한 이름을 채택하는 것을 옹호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유의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면 기독교의 일신교적 관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신들과 다른 영혼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스는 비판적으로 상황화하려고 시도했다.

언더우드와 같은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무속 뿌리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꺼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꼈다. 그가 제안한 대안적인 단어 나 이름으로는 진정된 신을 뜻하는 '참신'이나 '높은 군주'라는 뜻의 상주 등이 있었다.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아스 역시 무속적 맥락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바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모든 예배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천국의 화신이며,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과 거의 동일한 위대한 천국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과 결부지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한국인들은 기독교적 메시지에 흥미를 갖게 됐다.

미국의 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현지 시장에서 설교하면서 성령이 다른 모든 영혼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호소했다. 그는 "나는 당신들의 악한 영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성령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선포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영혼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인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모펫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한국의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가교로 삼아 효과적으로 선포하며 현지인들을 전도했다. 악귀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해방과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메시지는 지극히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삼위일체를 깨닫다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의 무속신앙에 영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단언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기독교 복음의 불완전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건국 설화인 단군 신화가 삼위일체적 관점과 현저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창조자)은 신의 인도를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돕기 위해 아들 환웅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낸다. 환웅은 곰인 여자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고, 단군은 대한제국을 세운다.

미국 선교사 험버트는 단군 신화를 기독교 일신교와 삼위일체 신학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환인은 창조주 하나님, 환웅은 성령, 단군은 환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한다고 1902년 한국 왕립아시아학회지 "한국민화"에 기록했다.

험버트 같은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진리로 내세우기보다는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접점을 찾고자 했다. '나와 신학이나 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단군신화를 실제로 믿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오크는 "현대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의 문화 신학적 계보를 해독하는 출발점"이라고 기록했다.

여성의 영역

한국 무속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여성들이 무속 행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를 '여성의 종교'로 보았다는 점이다. 여성 무속인들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신앙을 전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계층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속인들을 불렀다고 미국 선교사 J.R. 무스는 전했다.

그 결과 여성 무당들은 한국의 그 어떤 계층의 여성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의식을 수행하고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적인 힘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들의 힘은 한국 주택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일컫는 곳인 '안방'에서 보여진다. 남성이나 외국인 선교사는 출입할 수 없는 이 사적인 공간에는 한국 여성들만 초대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권한을 행사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공적으로는 힘이 없었지만, 안방이라는 친밀한 영역에서는 사적인 힘을 가졌다. "무당, 주부, 그리고 될 수 없는 영혼들"의 저자 로렐 캔달은 "여성 무속인들은 한국 여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카타르시스적 보상을 제공하고 한정적으로나마 해소시켰다"라고 기록했다.

이곳에서 여성 무당들은 집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의식과 영적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안에 있는 영들을 소생시켰다. 캔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악령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신들을 달래고, 갈 곳 없는 가족의 영혼을 지옥에서 해방시켰다.

이러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무속 의식(굿)은 여성들이 한을 풀고 영적인 힘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은 지속적인 억압과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 고통, 분노와 슬픔을 깊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유형의 굿이 대표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치유 굿, 변영 굿, 장례 굿이다. 굿을 통해 한을 풀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역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청빙 대상 및 자격: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속중인 분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지원 자격: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원 가능)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6) 설교-최소한 2편 이상(설교 주소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7) 가족사진
지원 방법: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보낼 곳(우편 주소):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웅철

에즈베리 리바이벌, 미 전역으로 확산세

(1면에서 계속)
 지난 17일, 벡 A. 테일러(Beck A. Taylor) 총장은 지난 48시간 동안 학교 리드 채플에서 진행된 학생 주도 예배 모임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예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또는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날 저녁 한 학생이 채플에

들어와 피아노로 찬양을 연주하자 소리를 들은 몇몇 학생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며 "모인 학생들은 7시간 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성경을 읽었다. 새벽 2시에도 20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이 캠퍼스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희망이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하여 썬포드 대학까지 번진 이번 부흥회는 1970년대 미국 캠퍼스 부흥과 비교되고 있으나, 이전의 역사적인 캠퍼스 부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강력한

연함이 보인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젊은이들과 전 세계적으로 청중을 끌어들여 이 현장에는 이목을 끄는 지도자도 없고, 대형 스크린이나 화려한 조명은 고사하고 나무 의자만 있는 단순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감동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성령의 움직임은 소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CBN 뉴스에 따르면 틱톡에서는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이 19일 기준 244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CBN은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에 부흥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영적인 굶주림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가슴속에 숨구치는 사랑으로...

(1면에서 계속)
 그해에만 무려 1,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정규 직원 1,800명을 해고했다. 거의 모든 매장이 시간제 직원으로 운영되었다. 같은 시기에 회사는 성희롱 혐의로 대표이사를 해고했다. 한마디로 회사의 모든 지표가 비참했다. 점포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온라인 판매도 저조했다. 주가는 무려 80퍼센트 넘게 하락했다. 게다가 회사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리라고 기대했던 야심작, eBook 단말기 녹(Nook)은 무려 90퍼센트 넘게 매출이 감소했다.
 말 그대로 보더스를 산산조각낸 아마존은 누가 봐도 승자였다. 반즈앤노블에 남은 것은, 글씨 오프라인 서점 정도인데, 그나마야 공간을 채우는 건장남감, 달력, 카드, 커피숍 정도였다. 이런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오이아는 CEO로 취임한 제임스 님트(James Daunt)의 리더십을 지적한다.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지만 하다. 나는 이런 놀라운 리더를 몇 명 직접 목격했고, 이제 일종의 법칙을 만들게 되었다. 지도부의 올바른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지도부가 저지른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간단한 법칙이다. 회사 전 직원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밤을 새우면서 노력해도 CEO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만회할 길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맨 위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료로 책을 나눠주는 법도 없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책에 대한 평가 절하라고 생각해서이다. 그는 매장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놀라게도 님트는 기존의 서점 관행, 좋은 곳에 책을 진열하는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받는 판촉금도 거부했다. 독자의 관심 유무와 관계 없는 일방적인 진열을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객과 출판사 모두가 다 "서점이 제공하는 상품을 알잡아 보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거부함으로써, 서점 전체를 "속물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성을 살피우는 의미에서 지적 만족을 채우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오이아의 분석에서 내가 얻은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니라 그가 제임스 님트의 "슈퍼 파워"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님트는 책을 좋아한다.
 "음악을 팔고 싶다면, 그 노래를 사랑해야 한다. 저널리즘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신문을 사랑해야 한다. 영화로 성공하고 싶다면, 영화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드물다."

라는 현실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적 경향을 조사하다 보면, 교회가 말씀과 성례 대신 커피와 음악,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회 현장 속 목회자는 예배의 인도자로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상품을 파는 매니저로 전락한다. 마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감독하는 직원처럼 종교 진료소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삶은 이처럼 진짜가 "사라지는"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 교회의 경우, 출석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른 증가인가?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의 진짜 목적이 사라지고, 교회의 본질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각종 장신구에 의해서 퇴색되었다. 반즈앤노블 CEO의 말을 빌리자면, 한 때 마치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을 만큼 지루해져버린" 오프라인 서점 반즈앤노블처럼, 교회도 지금 진짜 존재해야 하는 목적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건 아닌가?

그러나 지오이아의 분석에서 내가 얻은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니라 그가 제임스 님트의 "슈퍼 파워"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님트는 책을 좋아한다.
 "음악을 팔고 싶다면, 그 노래를 사랑해야 한다. 저널리즘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신문을 사랑해야 한다. 영화로 성공하고 싶다면, 영화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드물다."
 지오이아는 창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조차도 점점 사라져가는 사랑을 슬퍼한다. 무엇보다 "구원의 힘"을 가진 책을 향한 사랑의 상실을 아쉬워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단 사랑이 사라지면, 리더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금 흐름 및 기타 비즈니스 지표를 기반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
 물론 책에 대한 사랑이 반즈앤노블이 희생한 주된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그러함에도 이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책과 독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반즈앤노블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지오이아의 말이다.
 "이런 사람은 가르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은 만나는 순간 단번에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울인한다.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고용해야 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줄어드는 교인, 떨어지는 출석률이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기를 사랑하는 것,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경배하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함께 식탁에 모여 그의 선하심을 나누길 사랑하는 것.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잃어버리는 것, 가슴 속에서 숨구치는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 공식에 급급해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다.
 동역자여, 우리는 바리스타가 아니다. 관리자, 마케팅 또는 연설가도 아니다. 우리는 예배자이다. 우리의 가슴이 앞에 앉은 회중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일에 열정과 헌신으로 불타지 않는 한, 메마르고 지친 거짓 예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아시스가 될 수 없다.
 반즈앤노블의 반전은 교훈을 준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지 말라.

말 그대로 보더스를 산산조각낸 아마존은 누가 봐도 승자였다. 반즈앤노블에 남은 것은, 글씨 오프라인 서점 정도인데, 그나마야 공간을 채우는 건장남감, 달력, 카드, 커피숍 정도였다. 이런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오이아는 CEO로 취임한 제임스 님트(James Daunt)의 리더십을 지적한다.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지만 하다. 나는 이런 놀라운 리더를 몇 명 직접 목격했고, 이제 일종의 법칙을 만들게 되었다. 지도부의 올바른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지도부가 저지른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간단한 법칙이다. 회사 전 직원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밤을 새우면서 노력해도 CEO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를 만회할 길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맨 위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반즈앤노블에 오기 전에 님트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점 중 하나인 워터스톤즈(Waterstones)를 회생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혈관 속에는 책 판매의 노하우가 흐르고 있다. 님트는 스물여섯 살 때 런던에서 서점을 하나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서점 전체를 한마디로 "책 진열장"으로 바꾸었다고 지오이아는 설명한다.
 님트는 기존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결코 책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대폭 할인을 하지 않았다. 무



시론

튀르키예, 형제의 피를 나눈 사랑스런 민족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튀르키예 지진 소식에 온 세계가 아파합니다. 지난 2월 6일 현지시각 새벽 4시 17분, 구 터키였던 튀르키예 중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뒤흔든 7.8규모의 강진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5만명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고 앞으로 사망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아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특별한 관계의 나라입니다. 이전의 국호 터키는 6.25 전쟁 때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약 1만 5천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파견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친형 가까운 전사자와 2천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터키의 고등학생들까지 왜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느냐고 데모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를 누리는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이름 모를 터키 젊은이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가 터키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출입국 관리부터 호텔 직원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Oh, Brother!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는 자신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었다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들처럼 저를 따스하게 맞이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장소와 관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이라는 말 하나로 바로 형제가 되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터키를 향한 한국인의 고마움과 사랑은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터키가 가진 3, 4위전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삼양경기장을 가득 채운 7만명의 관중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지만 5만개가 넘는 터키 국기를 함께 들고 있었고, 자신의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터키국기가 관중석에 펼쳐지는 순간 터키 선수들 뿐 아니라 터키 국민들까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다시 한번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터키는 1천명의 용사를 잃었지만 5천만명의 한국인을 얻었다." 터키인들이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경기는 승패에 관계없이 한국 선수와 터키 선수의 따스한 어깨동무로 끝났고 터키인들은 승리한 것보다 한국인들의 터키 사랑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터키전이 있던 날, 한국인에게는 식비와 호텔비도 받지 않던 나라, 월드컵 이후 한국 사랑의 불길기 일어나 터키 수출이 눈덩이 불듯이 늘어갔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진정한 형제애로 뭉쳐진 나라는 각박한 경쟁체제의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심장에 녹아든 애정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형제 나라 터키, 튀르키예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춘을 한국에 바친 그 젊은이들의 나라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이라도 붙들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가슴은 오직 사랑만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바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오랜 세월 형제 나라로 사랑했던 터키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이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의 특별한 역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공식 국가 종교는 없지만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은 극소수로 그나마 대부분이 그리스 정교회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 곳곳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햇살을 저들 위에 비추어 주소서. preachchrist@kcpc.org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3. 논문제목: 포스트 펜데믹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4. 설교본문: 구약 - 야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 1 - 5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정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사도였고 믿음의 친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지나치게 다툼을 벌였던 것 같다. 그렇게 밀접했던 두 친구 사이를 분리했던 것은 격렬한 불일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위대한 성도들도 서로 불일치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도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삼손과 다윗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

람들이 큰 죄에 빠졌다. 그리고 욕과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환란 속에 그들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죽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엘리야와 요나도 삶에 지쳐서 죽음을 원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사람은 없었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도

없었다.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보면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본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러한 그들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거듭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

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지나온 두 달 동안 어려운 일을 연속적으로 당하며 이번 한 해는 망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10달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10달이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아이들이 경기하는 리틀 리그 야구 경기장에 갔다고 한다. 그는 선수 대기실(Dugout)에 있던 한 소년에게 점수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 소년은 18대 0으로 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그 남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굉장히 낙심해 있겠구나!" 그때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왜 낙심해야 할까요? 이제 게임이 1회로서 우리는 아직 타석에 서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스우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8대 0으로 경기를 지고 있지만 자기들의 순서가 오면 그보다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엔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이 세상에서 누구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병들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병들게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생활이 중요함입니다. 신실한 믿음생활을 통해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꽃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85세 갈렘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건강한 85세의 어른신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렘은 네 가지가 건강했습니다.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본문도 85세 고령의 노인이 된 갈렘이 45년 전의 일을 상기하면서 "40세 때나 지금이나 나의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며(수 14:7) 아직 일할 것이 남아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5세 고령의 노인이 된 갈렘은 40세 때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째, 갈렘은 건강한 믿음(Health of Faith)(8-9)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믿음도 병들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믿음

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병든 사람은 앞에서는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원망과 불평과 험담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소리를 하며 허튼소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해서 울고불고 낙심하게 만들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거나 협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에 병든 사람은 말을 할 때도 비판을 위한 비판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건설적이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건강한 갈렘이 85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수 14:11) 40세에 건강했던 갈렘은 85세에 되어서도 40세같이 건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몇 푼 더 버는 것, 다른 사람 보다 한자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밖에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일

가시가 있다고는 했지만 앓아누운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심은 항상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주었다(딤후 4:17)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바울은 끝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심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많이 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렘은 40세나 85세나 늘 생활이 건강(Health in Life)(12)했습니다.

갈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준 말씀이 "내가 네 밭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12)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갈렘과 여호수아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갈렘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대로 성취되어 땅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업적과 공을 내세우며 우선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지만 갈렘은 오히려 아직도 점령하지 않고 남은 험악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렘은 살아가는 생활도 건강했습니다.

생활이 건강한 갈렘은 "아낙 자손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산지인 일할 것이 있는 곳을 주십시오. 특히 거기에 있는 철용성 같은 헤브론 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싸워 이겨서 기업을 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생활이 건강한 갈렘은 자기가 밭과 피를 흘려 기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생명을 감당할 갈렘같이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생활이 건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아직도 일할 것이 남지 않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85세 어른이 40세 젊은이 같이 왕성하게 살아가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것 같이 주변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갈렘과 같이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이웃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GIVE ME THIS HILL COUNTRY)

여호수아 14장 6-12절



첫째, 갈렘은 마음이 늘 건강(Mental Health)(6-7)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시나이 반도를 거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살살이 정탐해보고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정탐꾼 중에 열 명의 사람은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무지 같으니"(민 13:33)라며 부정적으로 보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갈렘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병들어 악평을 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찢고 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만 하면 됩니다."(민 14: 8)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인 보고로 악평하지만 갈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이니 가서 취하자라고 낙심 중에

나 85세의 나이가 들어오도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은 은혜받을 때 건강해 집니다(히 13:9).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은혜받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악평을 하고 허튼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1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은혜받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웃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건강한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잠 4:23).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건강한

이 병들었을 때 앓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자주합니다. 열 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의 병들었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였고 너희 땅이 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악평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감염시킴듯이 믿음의 병든 사람이 가까이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도 병들어 버립니다. 누가 여러분 곁에 와서 원망과 불평과 험담하는 소리를 하거들랑 이 사람은 믿음이 병들었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밭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9)며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85세가 된 지금도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렘은 40세 때처럼 85세가 된 나이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셋째, 갈렘은 육체가 건강(Physical Health)(10-11)했습니다.

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죽어 천국에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갈렘 같이 40세의 건강을 85세가 되었어도 누리며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며 장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많이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육체에 찌르는

제자훈련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사역자 한 분이 탄식하듯 말을 했다. 대학 선교단체에서 영리하고 영민하여 제자훈련을 잘 받아 문제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개체 교회에서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장소와 지역, 교회에 따라서 제자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실제 이민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성경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했다는 분들을 조금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저들의 제자훈련으로 쌓은 배움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방식인데, 무엇이 문제란

여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 제자의 열매는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며, 버리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성도로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훈련에 앞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예배자의 기쁨부으심과 은혜의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되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배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하면서 주의 참 제자로 교회와 복음의 유익함을 위해 자라가게 된다.

교회생활을 통해 먼저 헌신

예배의 강조와 더불어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을 본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가지로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한 포기나 내려놓음이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여야 한다.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 무엇인가 나의 것을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과정을

가 되었으며, 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기본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음을 본다. 아주 소수이지만, 저들의 특징은 '한 두번의 감정에 따른 결단과 열정 없음, 헌신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예배중심, 교회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를 찾고 구할 때 나타나는 결핍현상의 한 부분이다.

교회에서 참 제자가 되라

초대교회 당시, 은혜가 충만하던 때에 바나바가 자기 발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나왔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였으며, 헌신된 제자가 되어 결국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런 그가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고, 주님앞에 참 제자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외계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으로 믿는데 주님이 재림 때도 이 지구에 오시는 것이 확실한가요?

- 나성에서 김종명 장로

A: 1898년에 나온 허버트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에 이미 지구를 침공하려 온 화성인들이 등장했고, 이를 필두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와 감독에 의해 상상 속의 외계 생명체들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그려져 왔습니다. 어쩌면 인터넷에 넘쳐나는 미확인 비행물체(UFO) 사진과 동영상, 외계인 피랍 경험담 등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중 과학의 엄밀한 잣대를 통과해 증거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교한 디지털 합성이 아마추어의 손에서도 어렵지 않게 가능한 요즘, 사진이나 영상의 신빙성은 과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창 1: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의 천은 하늘의 별들의 세계 은하계를 말하고 지는 지구를 말합니다. 먼저 지구외에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늘 보좌에 주님과 천사들이 있으며 지구외에 다른 세계에 인간과 같은 혹은 고도로 발달된 UFO를 타고 다니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허구이니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외에 다른 별들의 세계에 인간처럼 구원을 받을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 재림하십니다. 다른 곳에 외계인이 산다면 또다시 구원자가 와야 한다는 낭설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과 천사들이 있으며 지구외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허구”

그리고 인간은 지구 외에 바다가 없기에 다른 별들의 세계에서는 환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 뜨거운 여름에는 태양의 열을 흡수하여 기후를 조절하고 추운 겨울에는 흡수하였던 열을 발산하여 기후를 덜 춥게 만듭니다.

UFO는 Unidentified (확인되지 않은), Flying (날아다니는) object (물체)를 말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말해주듯 확실치 않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UFO에 대해서는 대략 6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선진국에서 비밀로 연구 실험하고 있는 비행물체. 둘째, 우주선 집입 도중 떨어져 나간 부분의 비행. 셋째, 이상적 정신 상태와 관련된 시각적 착각. 넷째, 이상기온으로 인해 나타난 자연계의 현상. 다섯째는 우주 외계에서 오는 초현대식 비행물체. 여섯째는 인간의 주의를 끌어 영적 혼란을 일으키게 하려는 사탄의 장난 등입니다.

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UFO를 보았다는 사람이 많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적인 존재이므로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집중해야 합니다. 콜로네이 드 교주가 외계인을 만나 우주여행을 했다고 하면서 2만 5천 년 전의 외계인들이 자신들을 복제해 오늘날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제자도, 제자됨, 성도됨

-예배, 교회, 헌신-

말인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20년째 코로나 시기에도 거르지 않았던 새해 40일 특새를 며칠 전에 마쳤다. 올해의 주제는 '누가 제자입니까?'였다. 제자훈련 목회로 시작해서, 그 한계를 깨달으며 예배 중심의 제자훈련, 예배 중심의 목회철학을 기반으로 스무해를 달려왔는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바를 기록하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제자됨과 성도됨, 구원.

제자훈련은 어떤 코스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과정이 수를 통한 지식 소유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도 주님이 싫어하면 과감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야 바로 제자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자신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을 까를 무엇보다 고민하여 기도해야 한다. 버리고, 비우고,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스승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 가운데 박사학위, 큰 교회 목회, 유명한 목사, 무언가 세상에서 누리고 호령할 만한 어떤 것을 얻는 일에 대하

뜻이다.
구원의 감격속에 드러지는 예배의 감격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제자훈련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주의 교회와 복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학위를 땀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성취감이 생긴다. 그 다음 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박사학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준비의 훈련이 부재한 지식의 열매로서는, 한 사람을 참된 인간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된다.

그래서 최고의 제자훈련은 반드시 참 예배자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제자훈련의 QT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원래 그 말씀을 본질로 들을 수 있는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능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의 종을 통해 잘 듣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중의 기본은,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새겨 온전히 듣는 것, 참 예배자가

통해 세상을 향해서도 목숨을 내어놓으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에 자신을 방임할 수 없다. 개인주의적인 개별 활동에 머무르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 사명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신을 드러는 헌신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친히 양육한 초대교회 열두 제자들도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핏방의 때에 살기위해 도망쳤던 저들이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에 먼저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통하며 함께 섬길의 헌신을 이루었을 때, 저들의 삶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후, 교회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때,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음을 본다. 순서가 분명하게 적용되어 나타남을 성경이 증거한다.

제자의 사명도 예배와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먹고사는 직업(job)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목회자, 제자, 사역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왜 목사

제자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악한 세상에서 더 강한 제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악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제자이다. 어디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를 피하고 벗어나서 일이 아니다. 교회와 예배에서 먼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야 한다.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감당했다. 자기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영원한 선생이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 오늘날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신앙자세가 어떠한가?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목회자와 함께 감당할 천국 복음과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제자훈련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이 다. 비겁하고 도망가는 모습의 제자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밖 제자훈련이 아닌, 교회 안의 제자훈련, 주의 교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됨의 훈련과 양육이 참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안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며, 주의 종과 한가지로 섬기며 동역하는 가운데, 먼저 교회안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이 반드시 순교의 제물의 영광을 얻기까지 복되게 사 용하여 주실 것이다.
davidnjon@yahoo.com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 | | | |
|----------|-------|------|-------|
| 미국 | \$100 | 유럽 | \$240 |
| 캐나다 | \$130 | 남미 | \$240 |
| 한국/동남아시아 | \$240 | 아프리카 | \$240 |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성장로교회)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자”

지난 2월초에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 강도 7.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간 새벽에 갑자기 닥친 강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섰고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지금의 하타이주의 아티키아)에는 시리아와 인접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전진기

지로 사용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육로로 시리아 입국을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그곳에 여럿 계시기에 그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는 지진 후 곧바로 구호사역을 하고 보살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급한 때에 구호헌금을 해서 피해지역에 보내도록 결정해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과 관심이 현지에서는 큰 힘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마음을 쓴 조그만 것이 그 지역에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 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005년에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지진/ 쓰나미 피해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무슬림이 대다수인 아체지역에 인도네시아에 있던 많은 단체들이 하나 되어 복구, 구호와 의료 사역으로 발이 빠르게 움직였고 세계 전역에서 넘쳐도록 많은 공금을 받았습니. 저도 당시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피해지역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미주 한인교회에서 전달된 구호 헌금으로 처음에는 생필품을 공급하고 후에는 텐트, 공동 화장실, 우물, 학용품으로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합류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체지역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을 바꾸게 되었고 우리

의 사랑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신이 지진 사람들을 조건없이 치유하고 필요를 공급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처음에는 왜? 라고 의아해하던 무슬림들이 후에는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꾸며 여러 가정교회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무슬림들에게 복음보다는 빵과 의류와 텐트가 우선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의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구호 사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속속 그 지역으로 합류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물품을 위해서 도움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먹을 수가 있는 빵과 수프, 물과 영양제, 텐트와 큐션 매트 및 휴대용 난로가 당장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역하려면 강통벤 같은 물품 수송 차량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생수 공급망(우물) 공동 화장실, 학용품 등입니다. 장기적으로 조립식 거주 건물이나 학교를 세우는 것은 국제적 단체와 정부의 몫이지만 가장 필요한 세세한 생필품을 채워줄 때 사람들은 더 지역에 남게 됩니다. 세계 반대쪽에 안타까운 필요에 나와 내 마음이 먼저 쓰임을 받는 북미주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튀르키예 동남부 6.4 지진 또, 사망자 4만7천명 넘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난 6일 강진이 발생한 지 2주일 만인 20일(현지시간) 규모 6이 넘는 강한 여진이 발생해 추가 사상자가 나왔다. 이날 기준 사망자는 4만7000명을 넘어섰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후 8시4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최초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쪽 16km에서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6.13도, 동경 36.0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로이터는 이번 지진의 진동이 이집트와 레바논까지 느껴졌다는 증언을 전했다. 기상청도 이날 오후 5시4분28초 튀르키예 안타키아 서남서쪽 16km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키이우 전격 방문... “푸틴 틀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오는 24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방문으로, 이번 전쟁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5억 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모든 우크라이나인에게 매우 중요한 지지의 표시”라며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시간 가까이 열차를 타고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뒤 5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안전 문제로 그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21~22일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키이우로 향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볼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



년 전 침략을 개시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강조했다.

韓·美 등 34개국 “러·벨라루스 올림픽 출전금지 유지”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국제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두 국가의 출전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에 공개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파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개별 선수들이 경기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IOC 제안이 많은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소속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그들이 자국에 의해 자금 등 지원을 받을 때 특히 그렇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러시아 선수들과 러시아 군대 간의 강력한 연계와 협력도 분명한 우려”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1993년 이후 유엔 총회에서 지지해 온 올림픽 휴전을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전쟁을 끝내는 것만이 자국 선수가 국제 스포츠계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루시 프레이저 영국 문화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IOC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계주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IOC에 입장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IOC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어떤 운동선수도 그들이 소유한 여권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는 게 막혀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중립’ 지위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러 반대에 올 첫 대북 유엔안보리, 성과없이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올해 첫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과 한국 등 서방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며 북한을 옹호했다. 황춘국 주유엔대사는 20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처럼(안보리) 기능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위협하는 다른 회원국은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또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북한의 결의 위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탄스럽다. 그러한 비토는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미국은 북한의 2월 18일과 19일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북한의 명백한 위반 행위는 안보리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의 거듭된 대응 실패는 북한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안정하고 단계적인 발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며 “위원회가 최근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와 전 세계를 갈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실패는 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상임이사국 때문”이라며 “거부권을 가진 두 이사국이 우리의 모든 대응 노력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대사도 “북한은 예고 없이 ICBM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2022년 이후 아홉 번째”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안보리 결의안이 무시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이나빙 중국 부대사는 “독점적으로 제재를 추구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활동을 증강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하고 계산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 돌린 것이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 연합훈련 확대)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치적·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일 등 11개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의 성명을 낭독했다. 북한은 그러나 면담 이후에도 지난 18일과 2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섰다.

푸틴 “미 핵 실험하면 우리도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장거리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호 사찰을 허용하기로 한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연방회의에 실시한 국정연설에서 “누구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핵 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뉴스타트 복귀 조건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내세웠다. 뉴스타트는 202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선 건 2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전쟁과 확전에 대한 책임을 서방에 돌리고 사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서방이 더러운 게임을 하고 있다”며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공급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유가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밀착 탓이라는 것이다. 7시간여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1000km 떨어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최전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그는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푸틴의 정복 전쟁이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연설 맞대결로 서방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의 진영 대결도 재확인되는 모양새다. AP통신은 “바이든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쟁은 미국과 동맹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외교 정책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습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이날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2면에서 계속) 말씀으로 충만해지다

한국의 여성 무당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전도자’들도 중재자, 치유자, 구마자, 영적 멘토 등의 역할을 했다. 기존 사회 규범에서 여성 무당을 가정 내의 종교적 권위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도자나 여성 전도자들은 한국 가정 내 진입 장벽이 낮았다. 이 여성 전도자들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내 개신교 선교 초기가 끝나갈 무렵 선교단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여성 전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동포들과 열정적으로 공유하고 여성들의

문해력과 역량을 증진시켰다. 종교학자 엘렌 스트론 리는 “한국에서 여성 전도자들이 복음화 작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안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안방 내 다른 여성 종교인, 특히 여성 무당의 권위를 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 전도자들은 기도하고 시편을 전했다. 사람들이 악한 영의 노여움을 달래다가 지질 때 그 짐작을 내려놓고 불태우고 전하는 것이 바로 여성 전도자들의 역할이었다. 그들은 악령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열렬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한국의 여성 전도자들은 육체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영적 욕구를 채워주고, 내면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그들이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본 여성 무당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선교사 J.R.무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 여성 무속인이 복음을 전하는 여성 전도자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여성은 성령을 수많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이해했다고 한다. 새로 개종한 몇몇 전직 무속인들은 여전히 악초를 사용하고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치유를 기도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도 성령에게 기도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현지화된 믿음

오늘날 한국 문화에는 여전히 무속신앙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당은 이러한 민속 신앙의 계승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신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속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종교적 혼합주의, 즉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관습의 융합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 내에서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선교 기록에는 연속적인 한국의 영적 구조에 관하여 선교 현장에서 보여준 두 가지 원리가 드러난다.

첫째, 한국인들은 다양한 영혼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미 그런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영적 세계의 존재나 하나님의 전능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무속신앙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영혼의 존재는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강한 통제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인식과 개방성은 기독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제공했다. 일부 신학자와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 내에 무속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교리적 정통성을 희석시킬 것을 우려해 비판했다. 그러나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서 기독교의 급속한 확산을 촉진했고 그곳에서 독특하고 현지화된 형태의 신앙

이 생겨났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는 평양 부흥의 정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집단기도(일명 통성기도), 새벽기도회, 기도원 방문 등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치유와 구마를 실천하며 창의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무속신앙은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동화되고 현지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었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이 시대에 발맞추어 신앙을 맥락화하기 위해 무속신앙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현지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실천하는 지속적이고 현지화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5)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3장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3)

* 교리 1의 적용: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4) 비 회심자의 세 가지 특징

악인은 다음 세 가지로 알 수 있다.

(1) 첫째 악인은 자신의 최고 만족을 땅에 둔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한다. 악인은 육체의 일을 구

을 분별한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믿으며, 그의 마음은 그 영광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것보다 이러한 영광에 마음을 기울인다. 모든 회심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한다. 하늘나라의 행복이 세상적인 번영보다 그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이다(빌 3:18, 21; 마 6:19-21; 골 3:1-4; 롬 8:3, 6-9, 18, 21; 시 73:25-26).

(2) 둘째 악인은 출세하고 세속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일로 삼는 자들이다.

비록 그는 성경을 읽거나

도 다시 일어나서 죄 범한 것을 회개하며 가까이 알고 있는 어떤 죄에서도 떠나려고 한다(골 3:1-5; 마 6:20, 33; 눅 12:21, 14:18, 24, 26-27, 18:22-23, 29; 롬 8:13; 갈 5:24).

(3) 악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한다.

그는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감사함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구속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자기 죄의 형벌과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위해 자기 영혼의 의사인 구주에게 가까이 통치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며, 지혜, 의, 거룩케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위탁한다. 그리하여 이제 그가 사는 것은 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것이다(요 1:11-12, 3:19-20; 롬 8:8; 빌 3:7-10; 갈 2:20; 요 15:2-4; 고전 1:20, 2:1).

5) 회심에 대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견해

* '나는 회심했다'는 자기 속인수를 경계하라!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새로운 견해를 취하고서는 침례교파와 웨

"모든 회심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한다"

하며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비록 그가 하늘이 땅보다 더 좋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는 온전한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에서 건강과 부와 명예를 가지는 삶을 추구한다. 비록 그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참으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더 많이 둔다.

* 악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인이요 회심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를 받고, 신앙의 의무들을 형식적으로는 많이 행하며 부끄러운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이며,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않는다.

* 악인의 목표는 세속적인 즐거움이다.

반대로 회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을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일로 삼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취하지만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조물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며, 죄를 미워한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경향과 성품을 가진다. 죄를 범해

를 받지도 않는다.

* 악인은 자기를 치료하려는 의사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익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으며, 그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다. 비록 그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맡긴 적이 없다. 반대로 회심한 영혼은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평화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렸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구속 사건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주 예수를

어겨봐 혹은 교황주의자 등등의 꾀에 들어간다. 또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양심의 확신이나 힘을 가지고 삶을 교정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속인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악인이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마 21:31) 죄와 비참, 그리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가 더 쉽다. 이에 반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회심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속고 마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무엇이 참된 회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yونس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겨울 한파

두 주 전, 텍사스 오스틴에 겨울 한파가 왔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텍사스의 따듯한 빛을 피하게 해주었던 키가 큰 나무들의 가지가 잎사귀에 달린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반토막이 나고 뿌리째 뽑히기도 하며 또 큰 가지 통째로 원줄기에서 뚝 떨어졌다. 추위에 약한 나무여서일까? 아니면 봄에 잎을 떨구기 위해 겨울내 불붙고 있었던 많은 잎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며 여기저기 산재한 부러진 큰 동치들을 보며 못내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도 잠시, 전기가 순간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정전이 되었다. 영하의 날씨에 내리는 비는 얼음이 되어 정겨운 나무, 오랜 벗들의 모습을 흥취하게 망가뜨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도 고드름이 맺히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컴컴한 집 안을 밝혀줄 촛에 불을 붙이고는 벽난로 주위에 모였다. 학창 시절 때 수련회 기간이면 단골처럼 있었던 모닥불 주위에 모여 기타 치고 노래하던 그 시절을 연상하며 우리는 기타 치고 노래하며 심란한 저녁을 새로운 환경에 씩씩하게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4일간 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정전된 첫날 밤은 쉬이 잠들지 못했다. 정원에서 쿵쿵 떨어지는 나뭇가지들 소리와 코가 시리고 얼굴이 시려서였다. 길은 온통 얼음이 되어 학교는 휴교령이 떨어졌다. 전화 배터리도 곧 방전될 위기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저녁을 갖다주고 싶다고. 다짜고짜 감사의 말만 빨리 남긴 후 배터리 2%가 남은 전화를 끊었다.

어느 분이 따듯한 삼계탕을 식구 수대로 끓여 냄비에 담아왔다. 코끝이 찡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라고 오늘 저녁 메뉴를 삼계탕으로 하게 하신 것 같으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분이 집을 방문하여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기자재와 전동들을 잔뜩 두고 갔다. 집에 있던 모든 전동들이 총출동한 것 같았다. 그리고는 벽난로가 신경에 쓰였던지 일산화탄소를 염려하는 문자가 올랐다. 방소가 말도 없는 분이 이렇게 자상한 마음을 표현해주시니 또 코끝이 찡해왔다.

밤늦게 카톡이 온다. 중보기도 팀장이 중보기도 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리를 위해 기도부탁하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글썽 거렸다. 팀장 집사님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니 그녀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또 감동을 주었다.

겨울 한파는 우리 동네의 외관을 폭격 맞은 흉측한 곳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 집 또한 여러 군데를 손질해야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온기를 전해주었고 상황이 매몰되어가던 나를 일깨우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시린 발과 손, 얼굴과 몸이었지만 우리의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포근한 시간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시편 11:4).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NY)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월 27일 (월)부터 4월 8일 (토)까지 오전 5시 45분 '내가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718-886-4040

온누리장로교회, 전도집회(NJ)

온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희 목사)는 3월 1일 (수) 오후 7시 30분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이 주최하는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이제는 전도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이영희 전도사가 강사로 선다.

▲문의: 845-359-1458

뉴욕실버선교회 개강(NY)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제 35기 훈련 개강예배가 2월 28일 (화) 오후 7시 30분에 뉴욕침례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드려진다. 개강예배와 함께 시작되는 훈련은 2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훈련 전 저녁식사는 준비된다. 등록비는 100불이며, 단기선교는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온두라스로 예정돼 있다.

▲문의: 516-387-9940

뉴저지실버선교회 39기 실버훈련 학생 모집(NJ)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준길 목사)는 3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뉴저지 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이고 등록비는 개인 100불, 부부 150불이다. 등록마감은 3월 4일까지이다.

▲문의: 201-957-930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Summer Camp(NY)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Summer Camp가 7월 10일(월)부터 8월 18일(금)까지 6주동안 열린다. 대상은 K-5th Grade이다.

▲ 문의: 정승호 목사 817-378-7736, 이은혜 전도사 347-245-3471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더센트 크리스찬 스쿨 썸머캠프(VA)

워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용철 목사) 더센트 크리스찬 스쿨 썸머캠프를 6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7주동안 열린다. 등록은 www.thesentschool.org 이다.

▲ 문의: 703-815-1200

뉴욕센트럴교회, 마미애미 봄학기 등록(NY)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마미애미 프로그램이 3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화,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 문의: 516-387-9940

벤엘교회, 시니어아카데미 봄학기 개강 등록(MD)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 2023년 벤엘 시니어아카데미가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금 오전 9: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13주간 열린다. 55세 이상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비는 100불이고 등록마감은 3월 3일까지이다.

▲ 문의: 백영준 집사(410-908-8949)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바이블칼리지 모집(VA)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 2023년 메시아교회 바이블칼리지가 '성경인물과 심리분석'을 주제로 3월부터 8주 과정으로 온라인 수업 매주 화요일 저녁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강사는 이관직 교수(현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교수, 전 총신대 신대원교수)이다. 수강료는 40불이다.

▲ 문의: 김성수 목사 703-941-4447

암환자를 위로하는 새생명선교회 18주년 맞아 기도회

새생명선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암환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18주년을 맞아 1월 26일(목) 오전에 뉴욕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기념예배 및 기도회를 드렸다. 뉴욕교협 회장 이준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에 소망과 새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며 "새생명선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모든 사역의 마지막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원했다.

심의례 전도사는 "자신이 2005년 유방암 수술 후 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선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암이 재발되었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병을 통해 더 약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케이스를 소개하여 감동을 주었다.

새생명선교회 사역의 특성상 대면심방이 우선이지만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사역이 지난해에 암환자를 위한 14회 사랑의 음악회를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매주 목요일 기도회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 기도회를 통해 암 환우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생명선교회는 이 외에도 △암 환우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암 환우와 함께하는 가족 야유회 △추수감사절 만찬 △한해를 보내는 송년모임 △암 환우 심방과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 △암 환우를 위한 건강 세미나와 식생활 세미나 △암 투병 수기공모 등의 사역을 해 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세미나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목사회, 차세대 공동체 성경읽기 세미나

오디오 드라마바이블을 활용 소개

51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차세대 공동체 성경읽기 세미나를 2월 20일(월)부터 1박 2일 간 롱아일랜드 Melville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가졌다.

G&M 재단(Grace & Mercy Foundation)의 오디오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한 공동체 성경읽기(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위해 김남수 목사(프라이스 교회 원로)와 재단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50여명이 등록비 없이 무료로 참가했다.

첫날 오후 3시에 드려진 개회예배는 사회 회장 김홍석 목사, 기도 부회장 정관호 목사, 설교 원로 김남수 목사, 광고 및 안내 총무 박희근 목사, 축도 및 안재현 목사, 축도 직전 회장 김명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공동체 성경읽기(PRS)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 효과적인 목회 현장에서의 적용 등 4편의 강의를 진행했다. 강사로는 G&M 재단의 김응식 대표(북중남미 한국교회사역 대표)와 찰스김

목사(매니징 디렉터)가 강사로 섰다.

이번 세미나를 이해하기 위해 G&M 재단을 이해해야 하고, 재단을 이해하려면 G&M 재단 대 표인 빌 황 장로를 알아야 한다. 김남수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그 배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어 성경은 전문 성우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드라마틱하게 녹음 됐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남수 목사는 한국어 오디오 성경에 이어 일본어와 히스패닉 등 6개 언어로 성경을 녹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개 언어 녹음을 더하면 전 세계 8억 인구가 누구든지 자신의 언어로 무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2월 28일(화) 오전 10시30분에 뉴욕만나교회에서 천일웅 변호사를 초청하여 "노인복지법과 상속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리: 김재상 기자)



BLESSED 컨퍼런스에서 다함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2023 BLESSED 컨퍼런스의 놀라운 현장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찬수 목사, 개리 패럿 박사, 박찬섭 목사 강의 진행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2월 19일(토) 초대교회 교육관에서 차세대를 교육시키는 교회 교사들을 위한 2023 BLESSED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이름인 "BLESSED"는 주님의 사랑으로(Loving), 맡겨주신 다음세대를 격려하며(Encouraging),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쓰고(Sanctified), 성령 안에 거하여(Spirit filled),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Eternal), 예수님의 제자(Disciples of Jesus)가 되자(Be)라는 뜻의 영어 첫 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특히 올해는 주강사로 이찬수 목사(한국 분당우리교회)를 초청했으며 한국어 강사와 영어 강사가 나누어져 강의가 진행된 가운데 큰 관심을 끌었다.

또 개리 패럿 박사(기독교 교육 전문가)와 함께 뉴저지초대교회 새로운 담임으로 취임한 박찬섭 목사 등도 강사로 섰다. 선택강의 강사로 이진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 권혁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교 글로벌사역 디렉터)와 목회신학 겸임교수, 안드레 최 전도사(Mosaic Christian Fellowship 대학부 담당) 등도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 컨퍼런스는 더욱 '견고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새생명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교협, 박성규 목사 초청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하는 눈물과 불의 영성 강조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2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다.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강사는 박성규 목사(남가주 주님세운교회)이다. 박 목사는 지난 회기(회장 김희복 목사)에도 미스마 회개운동 집회의 강사로 선 바 있다. 집회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에서 열렸으며 수요일 저녁에는 성공회뉴욕한인교회(배요셉 신부)에서 열렸다.

박성규 목사는 둘째날 집회에서 혼란한 시대를 예언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갔는데,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와 메타버스, 그리고 온라인예배에 대해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다. 박성규 목사는 "세대가 바뀌어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외에도 여러 목사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특히 메타버스로 교육을 하기는 좋지만 예배는 힘들다"고 지적했

다. 온라인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흥하는 것은 성도들이 현장에 모이기를 막고 흘려려는 사탄의 작전이라고 했다.

특히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충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충성'에 관한 예화를 찾고 싶을 때는 구글에서 예화를 찾고 편집하여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챗GPT에게 '충성에 대한 설교 한 편을 쓰라'고 명령하면 급세 설교를 작성해 준다는 것. 논문도 마찬가지이다. 박성규 목사는 이제 설교준비를 몇 갑절 더 해야 한다며 자신은 직접 볼펜을 가지고 설교를 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하는 눈물과 불의 영성을 강조하며 "온라인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좌가 된다. 목사가 뜨거워야 성도들이 따뜻하고, 목사가 따뜻하면 성도들이 미지근 하다"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세미나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미셔널처치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제3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 "다음세대 선교" 주제로 열려

주 강사 빌 윌슨 목사 저녁집회에 말씀 전해

제3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Missional Church Conference)가 2월 17일(금)부터 3일간 뉴저지 필그림선교센터에서 열렸다.

필그림선교회 양준길 목사는 2014년부터 쇠퇴기 한인교회의 대안으로 미동부에서는 처음으로 교계에 미셔널처치를 소개했으며, 2018년에는 이광길 총장과 이상훈 교수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1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를 열고 미셔널처치의 개념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팬데믹을 거치고 미셔널 컨퍼런스는 주제별로 열리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난민선교"를 주제로 하는 2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가 뉴저지 교계 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며, 지용주 목사와 황영송 목사 등이 강사로 섰다. 2023년에는 "다음세대(Next Generation) 선교"라는 주제로 열려 성인 200명과 아이들 80명이 등록을 했다. 첫날 저녁 집회에는 350여명이 참석했다. 주강사인 빌 윌슨 목사가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빌 윌슨 목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2만5천 명, 전 세계 25만 명 아이들의 모바일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MWC(Metro

World Child)의 설립자이다. 12세 때 어머니에 의해 길거리에 버려진 빌 윌슨 목사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주일학교 캠프에 참여하여 복음을 들었고, 자신과 같이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돕는 사명을 다하며 1980년에 브루클린에서 MWC를 설립했다.

18일(토)에는 참여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다음세대 선교사역들을 소개하고, 3차례 선택식 포럼들을 통해 네트워크 하며,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한 단체는 어린이 전도 협회, 뉴욕 시라큐즈 난민 어린이 사역, Awana, Metro World Child, SEED JP, Cru 대학생 사역, 보이는 성경, 풍선/페이 스페인팅, Eastern Christian School, PSBC/After School/Cookie Break, 어린이 뮤지컬 사역팀 등이다.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역 정보를 다운로드 하여 볼 수 있다. 특히 MWC팀들은 참가자들에게 가두 주일학교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설립20주년 감사예배

“성시화의 사명을 기뻐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설립 20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15일(수)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백은학 장로(홀리클럽회장)의 기도와 최순복 권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의 성경봉독,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특별한 양과 성시화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소개가 있는 후 진유철 목사가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면 승리한다(빌 1:3-5)’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 목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설립20주년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 중에도 불평과 염려가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시화의 사명을 기뻐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되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좋은성품 가정세미나에서 이영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좋은성품 가정세미나 개최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도의 표현”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17일(금)과 18일(토) 양일에 걸쳐 ‘좋은성품 가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고창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첫날 저녁 강의를 ‘막힌 담을 넘는 법: 숨겨진 마음 읽내기’라는 제목으로 이영숙 박사가 강의했다.

이영숙 박사는 “성품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관찰하는 마음, 그리고 느낌 뒤에 숨겨진 욕구를 찾는 마음과 요청하는 마음”이라 설명했다. 이 박사는 “성품에는 유전적 요소 50%, 환경적 요소 50%가 있다”라며 “부모로부터 성품이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온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교육 환경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성품교육을 통해 하나님 닮은 아이로 키울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화평한 공동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 그는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며 좋은성품은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그리고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 후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감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경청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문제들은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모를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회복되기를 항상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날 오전 두번째 시간에는 ‘다세대대의 위기와 부모의 역할’, 그리고 세번째 시간은 ‘기쁨의 성품으로 자존감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영숙 박사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이민교회 역사 120주년 기념 한국 하와이 연합집회에서 한미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에 원안은 수요일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학봉 목사

이민교회 역사 120주년 기념 한국 하와이 연합집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

이민교회 역사 120주년 기념 한국 하와이 연합집회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12일(주일)부터 15일(수)까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5일(수) 오후 7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오대연 목사(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사회로 열린 집회는, 원홍연 목사(베다니연합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한미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장학봉 목사(한국 성안교회)가 ‘요셉의 길을 따라(창 37:6-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250만 한인교민사회를 만들고 곳곳에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하와이가 모체가 되고 기준이 됨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장자교회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앞으로 시간은 코비드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새롭게 주어진 이 시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공동대표인 송정명 목사는 인사말에서 “성시화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복음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칼빈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표본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바가 천국 같은 도성으로 변화되기를 꿈꿨다. 김준곤 목사님의 비전으로 2003년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되었다. 성시화운동을 통해 LA지역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며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 옮겨 놓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 대표회장, 할렐루야교회 원로)와 이영훈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사메시지를 전했다며 최규남 총장(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 축사를 전했다.

미주성시화운동은 2003년 남가주사라의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어 그동안 LA성시화대회, LA홀리클럽 정례모임 등 LA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해 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라의교회 2023 새생명축제

남가주사라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023 새생명축제가 3월4일(토) 저녁 7시 5일(주일) 1-4부예배시간에 갖는다. '함께 할까 YOU'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3 새생명축제의 강사는 안홍기 목사(글로벌찬양의교회)이다. ▲ 문의: (714)772-7777

나성순복음교회 창립 49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창립 49주년 및 임직감사예배가 3월3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323)913-4499

나성영락교회 창립50주년 기념주일에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창립50주년 기념주일에배가 오는 3월5일(주일) 예배시간(1부 오전 8시30분, 2부 오전 11시)에 갖는다. 또한 오후3시에 은퇴 및 임직식을 거행한다. ▲ 문의: (323)227-1400

종말론적 영성과 말씀 세미나

엔젤스교회 말씀 사관학교가 주관하고 두 증인 미니스트리가 후원하는 “종말론적 영성과 말씀 세미나”가 26일(주일) 오후 3시 엔젤스교회(255 S Hill St, LA, CA 90012, 3층 Library)에서 열린다. 강사로 나서는 위트니스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M. Div.) 2003년에 도미,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교학 석사학위(M.A.I.C.S)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에서 설교담당 목사를 역임했으며 영적 광야에서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성령의 계시적 기름부음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여 Shepherd University에서 신학박사 학위(Th.D.)를 받았다. 교회는 주차장 A파킹에다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면 된다. ▲ 문의: (323)485-8484



LA아트쇼 2023 성황리에 열렸다

LA아트쇼 2023 성황리에 열려

크리스천 작가들... 작품속에 하나님나라담아내

LA아트쇼 2023이 15일(수)부터 19일(주일)까지 LA컨벤션센터 웨스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LA아트쇼는 전세계 2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 및 미술작가들이 참여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에서 16갤러리가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 열렸던 LA아트쇼 2022에 3팀이 참가했던것에 비해 참가자 수가 확연히 늘어난 셈이다. 특별히 크리스천 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우선 “갤러리 아인(EYN)”, “갤러리 파도”, “갤러리 엘림”, “아트인 동산” 등이 참여했으며, 신예

진, 김원숙, 박선진, 민연식 등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갤러리 엘림을 통해 출판한 현명명 작가는 자연의 신비를 찬양하고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졌으며 ‘로맨스 1802’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갤러리 아인을 통해 신예진 작가가 출판한 왕관은 면류관을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작품 속에 십자가를 녹여내는 작가들의 정신에 복음이 들어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한인교회 은혜찬양콘서트 성황리에 열렸다

오렌지한인교회 은혜찬양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콘서트를 통해 영혼의 소생함을 체험하는 시간되길...”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찬양콘서트를 18일(토) 오후 7시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피세원 목사는 “귀한 잔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며 오늘 콘서트의 주제처럼 ‘가장 귀한 삶’이 될 줄 믿는다”며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콘서트를 통해 회복되고 영혼의 소생함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한국에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찬양사역자인 손경민 목사, 김정희 사모, 주리 자매, 이기명 전도사와 이윤화 일본선교사가 출연하여 은혜로운 찬양

을 선보였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행복’, ‘은혜’ 등은 청중들과 함께 부르며 찬양을 통해 부여주시는 은혜를 이날 교회를 찾아온 관객들이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이 마친후 찬양사역자들의 찬양이 담긴 CD에 사인을 받으려 모여든 한 참석자는 “BTS가 콘서트를 해도 가지 않았는데 오늘 콘서트는 참석해서 사역자들이 직접 만나보고 싶었고 함께 찬양을 통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미주복음방송 주관으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2023년 성장교회 컨퍼런스

“말씀과 나눔으로 위로와 힘이 된 시간”

2023년 성장교회 컨퍼런스(Growing Church Conference)가 지난 2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The New Wineskins, 마가2:22)’란 주제로 열렸다. 첫날 개최예배에 이어 이창민 목사가 ‘Post Pandemic Leaders’란 주제로 발제한 후 그룹토의를 갖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강해성 목사가 ‘Doing Theology in AI Age’란 주제로 오전, 오후에 강연에 나섰다. 저녁에는 ‘Post Pandemic Wordhip’에 관해 김재천 목사, ‘Long Term Ministry’란 주제로 박용규 목사가 강연했다. 셋째 날에는 ‘Post Pandemic

Mission’이란 주제로 유제성 목사가, 오후엔 ‘Pandemic Ministry Sharing’이란 주제로 오대연 목사가 강연한 후 그룹토의, 그리고 자유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남재현 목사가 ‘Ministry Story’란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개최예배는 송계영 목사(상향한국인교회)가 ‘샤르밧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이어 매일 열린 예배에서는 옹광석 목사(포틀랜드연합감리교회)가 ‘위로의 주님’, 김용근 목사(크레센타 주비 연합감리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칠까’란 제목으로, 마지막 날에는 김정민 목사(희망교회)가 ‘숙제가 아닌 숙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폐회예배에



성장교회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서는 이기용 목사(겨자씨 한알교회)가 ‘참는 것이 목회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장교회 컨퍼런스는 2002년에 소형교회 컨퍼런스(Small Church Conference)로 시작되었다가 2015년에 ‘그로인 처치 컨퍼런스’로 리뉴얼 한 후 지금까지 연합감리교 서부지역 사역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중소형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성장교회 컨퍼런스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

한 목회 전략과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들의 성장과 배움 및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열렸다. 준비위원장 황승일 목사(우들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멈춰있던 컨퍼런스를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팬데믹 이후 한인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안타까운 안타키아

사도행전 11장에 시리아의 안디옥(Antioch)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선교의 중심지였다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모판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리스도인, Christian'이라는 호칭이 최초로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 3차례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선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은 동로마에 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프랑스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들어와 튀르키예(구 터키)의 영토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쳤던 안디옥에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인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물만 남아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새벽에 튀르키예의 동남부 도시 '안타키아, Antakya'에 강도 7.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차례의 여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5,000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국경 접경지역인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도 동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4만8천여명(21일 통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 아래 이십만 명이 깔려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1세기에 일어난 최대의 지진피해입니다.

'안타키아'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복음이 왕성했던 곳,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했던 기독교 역사의 성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너진 지 오래고, 신앙도 무너지고, 이번 강진으로 도시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찌늘한 시체를 끌어안고 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배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구조대에게 시신을 담은 봉투라도 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안타키아'를 바라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할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큰 흥년이 들었을 때 힘을 모아서 유대의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안타키아'를 부조해야 합니다. '안타키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곳의 연약한 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4:28)

bible66@gmail.com

내일부터 사순절... 성경 필사·미디어 금식 '조용한 비람' 분다

엔데믹 이후 첫 사순절, SNS·게임 끊는 성도들 부쩍

육군 7사단 기독장병들은 올 사순절에 성경 필사를 한다. 사단 예하 칠성교회(이신영 목사)는 사순절 성경 필사집도 제작했다. 필사집에는 복음서와 바울서신 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담은 본문이 실렸다. 사단 군종장교인 윤하진 목사는 "이미 장병들에게 필사집을 나눠줬다"면서 "사순절을 맞은 기독교장병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쓰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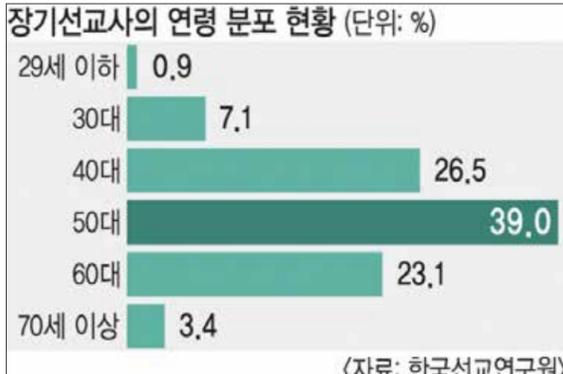
'재의 수요일'인 22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된다. 고난의 절기인 사순절은 부활주일인 오는 4월 9일 하루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한다. 사순절이 되면 교인과 교회 모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올해는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사순절인 만큼 교인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비대면

으로 단절됐던 신앙의 교제가 재개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교인들은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을까.

교인들이 선호하는 사순절 경건 프로그램으로는 여전히 성경 필사와 통독이 꼽힌다.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박희영(46·여) 집사도 '사순절 성경 필사'에 나선다. 박 집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면서 "엔데믹 후 처음으로 맞는 이번 사순절에 하는 필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

고 말했다.인천 사랑나무교회(민성신 전도사)에 출석하는 이나라(39·여)씨도 "사순절은 세상 풍습을 버리고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성경 필사를 하며 예수의 고난을 되새기려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금식을 하며 절제를 실천하는 교인도 점차 늘고 있다. 미디어 금식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인터넷과 SNS, 온라인 게임, 유튜브 등과의 접촉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장기선교사의 고령화 빨간불... 50대 이상이 63%

"은퇴 선교사 대책 시급"

생명의빛예수마을교회(하룡 목사)는 경기도 가평에 은퇴선교사 주택인 '생명의빛휴타운'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65세 이상의 선교사들이 보증금 2000만원만 내면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교회는 은퇴선교사의 일자리도 창출해 4대 보험까지 책임진다. 하룡 목사는 21일 "현재 이곳에 16가정이 정착해 살고 있다. 교회는 매달

관리비와 식대를 포함한 120여 만원을 선교사 부부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선교사(2년 이상 사역)의 고령화가 고착화되면서 은퇴선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교회보다 교단이나 초교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은 최신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이날 서울 동작구 KWMA 대회의실에서 '2022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응답한 단체는 228곳이다.

지난해 한국 국적의 장기선교사(2년 이상)는 2만2204명이었고 파송 국가는 169개국이었다. 단기선교사는 482명,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는 910명이

있었다. 장기선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선교사의 연령 분포(표 참조)에서 50대 이상은 39.0%, 60대 이상은 23.1%, 70세 이상은 3.4%로 50대 이상이 65.5%나 됐다.

홍현철 KRIM 원장은 "만약 70세에 은퇴한다고 볼 때 현재 60대 이상인 선교사 26.5%(5889명)가 10년 이내 은퇴한다"면서 "65세를 은퇴 나이로 본다면 현재 선교사의 46.01%(55세 이후) 50대의 절반으로 계산할 경우)인 1만 216명이 10년 이내 은퇴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30세 이하의 선교사 비율은 8.0%에 불과했다. 홍 원장은 "한국선교 운동의 지속을 위해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청년들의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희망의 기쁨, 선한 영향력으로 나눌 것"

희망친구 기아대책 홍보대사에 배우 윤은혜 위촉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21일 기아대책 서울 강서구 본

사에서 배우 윤은혜를 기아대책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 홍보대사는 국내외 빈곤 종식을 위한 기아대책의 활동에 동참하며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배우 박신혜, 가수 윤도현, 배우 김혜은, 뮤지컬배우 홍지민 등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새롭게 홍보대사 대열에 합류한 윤은혜는 지난 2012년 KBS 1TV '희망로드 대장정' 촬영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오며 기아대책과 처음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아동 빈곤 종식을 위한 '2022 스톱 헝거(Stop Hunger)'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해 뜻깊은 후원을 독려한 바 있다. 배우 윤은혜는 최근에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WSG

워너비 멤버로 활동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날 위촉식에서 윤은혜는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해 기아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팬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내외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지구 반대편의 척박한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길 정도로 진정성 있게 나눔을 실천해 오신 윤은혜 배우님을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로 맞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는 윤은혜 홍보대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나눔을 펼치면서 국내외 곳곳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로 청소년 붙잡아... 교회학교 살리기 시동

'웨이크업', 오지 직접 찾아가 청소년 집회 개최

19일 주일예배를 앞두고 강원도 양양의 양양감리교회(조선석 목사)에 청소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대표 최재롬)이 현지 기독교연합회 및 교회들과 함께 진행하는 'wake up(웨이크업)'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 운동은 지난해 말 인큐베이팅이 교회학교가 거의 사라진 오지에 직접 찾아가 교회학교 생태계를 회복하고 다음세대 복음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양양에서 웨이크업 운동의 첫 집회가 열렸다. 현재 양양의 교회학교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50여개 교회가 있지만 청소년부 학생은 5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학교 생태계가 일찌감치 붕괴되다 보니 다음세대 복음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웨이크업 운동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전에 현지 교회 등의 지원을 받아 미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집회를 갖는다. 양양에서 열린 첫 집회엔 예상한 것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석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웨이크업 운동의 백미는 찬양예배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로이워십 등이 진행되는 은혜로운 찬양을 경험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접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하며 따라불렀다.

양양 기독교연합회 관계자

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아름다운 찬양이 결집여진 예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고리타분한 예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 같은 경험을 한 청소년은 보다 효과적으로 교회에 인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양양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기현(15)군은 "태어나서 이런 찬양 집회는 처음 경험해 봤다"며 "기본적으로 좋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 이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들여보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양양고등학교 1학년인 백종인(17)군은 "지금 양양 청소년들에게는 찬양이 필요하다"며 "매월 웨이크업 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청소년은 양양중 강현중 양양고 등에 기독교동아리를 세우겠다는 결단도 했다. 최재롬 인큐베이팅 대표는 "교회 내 다음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미전도 청소년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노력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됐다"며 "추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도시들에 웨이크업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ission 선교의 창 (21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장학(獎學) 사역을 통한 선교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훌륭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대형교회는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 국가도 새로운 통치권자가 들어서면 내각에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일꾼을 찾기에 혈안이다. 현대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인물은 흔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왜 총리 요셉이나 에스라 같은 출중한 지도자들이 별로 없는가? 답은 간단하다.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일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자양분을 먹고 자란 대들보 나무처럼 역사 속에서 키워진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인물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편 중 하나가 장학사역이다. 오늘날 몇몇 교회나 단체 등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약하고 단회적이며 순수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적 장학사역으로는 걸출한 인재들을 배양하기 어렵다. 장학사역에 대한 배경과 대안은 무엇인가?

1. 장학금의 의미와 역사성

장학금의 사전적 정의는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 보조금으로 내주는 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종종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

로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 한민족은 고려 때 국가감에 설치한 양현고를 일종의 장학재단으로 볼 수 있다. AD 1119년에 설치하여 판관(判官) 4명을 두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양현고 직속의 전지(田地)에 파견하여 세(稅)를 거두어들이게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양현고에 남아 이를 받아들이게 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한

교사로부터 A라는 학생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학생은 그 나라의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덩그렁 형제 둘만 남게 되었다. 그는 학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때 백민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듯 기도하며 매달 일정액을 학생에게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매년 한 차례씩 방문하여 격려하며 지도했다. 원래 신앙심이

다. 조선시대의 양현고 옛터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쪽문 근처에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도 양현고를 계승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장학금에 대한 역사와 사례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로즈 장학금”이다. 이는 1902년부터 시작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2. 장학 사역의 모범적 사례

1999년 NY의 백민교회는 선

투철했던 그 학생은 대학 졸업과 함께 온전히 헌신했다. 그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일정 과정을 마치고 다시 현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의 학업 과정은 대학 본과 4년 말고도 성경학교 2년, 신학부 4년 대학원 3년 등 학업 과정만 장장 13년이 걸린 것이다. 그는 결혼을 하였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제 그는 신실한 종이 되어 주의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영성, 지성, 덕성, 헌신도 면에서 손색이 없

다. 한마디로 인물이 된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민교회의 선교 내용이다. 본 교회는 건물이나 사립에게 투자했다. 장학사역을 한 번 딱 값 주듯 일회적으로 끝내지 않고 그가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왔다. 교회가 영적 아버지 심정으로 고독한 청년을 키워 세상 한복판에 내어놓은 것이다.

3. “Scholarship America” 라는 장학재단

본 장학재단은 어빙 프래드킨(Irving Fradkin)에 의해 1958년에 시작되었다. 그는 원래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민 2세였으며 검안사(optometrist)였다. 그는 성장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그는 가난을 이기고 마을을 살리는 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가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1달러 장학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집집마다 돌면서 취지를 설명했고, 피켓과 현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게 혼자 시작한 Dollars

‘Scholarship America(SA)’로 정착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 피터스에 본부를 둔 SA는 1958년 이래 지금까지 약 35억 달러를 모금해 220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5년 말 1,100개 지부를 둔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 장학·교육 재단이 된 것이다. 프래드킨은 장학철학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야말로 황금이 나 석유보다 더 소중한 미국의 자산이다. 장학금은 가난한 이들에게 거저 주는 시혜(hand out)가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받쳐 올리는 것(hand up)이다.”

4. 장학 사역에 대한 기독교 단체의 방향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신앙, 재능, 의지도 있는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되어 포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미국 대학에는 전 세계에서 온 110만 명의 유학생들이 있다. 저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 만나야 할 청년들이 제 발로 우리 곁에 와 있

에게 베푸는 선행은 은밀할수록 좋다. 둘째, 장기적이어야 한다. 길거리 옛장수가 맛 베기 옛 주듯 단회적인 장학사역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셋째, 장학금의 주인공은 지급자가 아니라 수혜자라는 인식변화이다. 이에 교회나 단체는 수혜자가 자존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쥐꼬리만 한 금액으로 청년들을 전체 교인들 앞에 세워 전달식을 하며 사진을 대문짝만 하게 찍어 언론에 띄우는 행위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

맺음 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 속히 이루어라”(사 60:22). 장학 선교는 거저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인다.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과 기름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다. 선을 행할 때 조건적이지 말아야 한다. 목표 지향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장학 사역

세상은 각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훌륭한 리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일꾼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for Scholars’ 캠페인으로 그 해 말 4,500달러를 모금했다. 당시 \$1은 지금의 \$8이며 주립대학 등록금은 약 200달러였다. 그는 이것으로 고교 졸업반 24명에게 100~3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년 뒤인 1960년 모금액은 17,000달러로 성장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금액 가운데 14,000달러가 ‘1달러’ 기부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장학금으로 70명을 대학에 보냈다. 캠페인 규모가 커지면서 프래드킨은 61년 ‘미국시민장학재단(CSFA)’을 설립했고, 합병 등 이련저런 계기로 명칭을 바꾸어 2003년 지금의

다.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지 알 수 없다. 북미주 4,700 한인교회에서 1년에 1명씩만 영적 자녀로 입양해 뒷바라지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산적으로 크게 버거워 할 필요도 없다. 각 교회에서 장학 사역으로 1%의 예산만 책정해도 가능하다. 문제는 긍휼한 마음과 선교적 열정이다. 사랑의 씨앗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장학 사역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첫째, 가능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남

에 대한 노하우는 서구 기관들이 한참 앞서 있다. 우리 한인교회와 단체들은 겸손하게 저들의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 전략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감성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단발적인 장학 사역은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위에 언급한 어빙 프래드킨(Irving Fradkin)이 추진한 Scholarship America 단체처럼 소리 없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jrsong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⑧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1) 십자가의 역사

예수님께서 죄수가 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의 기원은 다소 복잡합니다. 필자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며 십자가형의 기원을 앗수르로 봅니다. 앗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입니다. 앗수르 제국은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적군을 처형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반적 사형제도로 운용되었고, 로마 시대에 공식적인 처형법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경외함으로 십자가형을 폐지하는 4세기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앗수르는 잔인함에 있어서 창의력과 기발함을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정복지 주민들이 반항과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앗수르의 포학성’이라는 소논문에서 피터 프레스카는 앗수르 군대의 잔학한 처벌법을 소개합니다. 그는 앗수르 군대는 적군의 신체(팔, 다리, 혀, 코, 귀) 절단이나 고환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을 공공연히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앗수르의 이런 잔인성은 십리전 일부였습니다. 적군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할 목적이었는데 너무 잔인한 방법을 취하자 아군 병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앗수르제국은 저항이 심한 적장(敵將)이나 적군의 주요 인물은 기둥에 박아 죽였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끝을 뾰족하게 깎은 다음 복부를 찢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이 사형법의 효과가 컸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정복한 장군의 세력을 과시하고 적군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의 원조이었습니다. 십자가형(Crucifixion)의 의미는 ‘나무, 벽, 바위 등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앗수르의 매달아 죽이는 처형법이 십자가형의 기

원으로 이해됩니다. 앗수르의 매달아 죽이는 사형법은 페르시아로 전수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사형제도로 정착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매달아 죽이는 것은 장대, 나무 혹은 절벽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하만의 장대는 페르시아

형적인 페르시아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민간신앙과 만나며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민간신앙은 땅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대지라고 믿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처형한다면 신이 주신 신성한 땅이 더럽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공중에 매달아 처형하는 십자가형이 쉽게 유행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일반화된 십자가 사형법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건너갔고 카르타고에서 다시 로마로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세계를 정복하던 알렉산더(Alexander the Great) 대왕이 십자가 사형법을 발견하고 그리스-로마 사회에 도입했고, 로마 시대에 국가 공식적인 사형법으로 정착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들은 로마인

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반란자나 노예계급에 속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한 유대인이 많습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항전했던 유대인 수천 명이 로마군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로마 시대에 노예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십자가 처형을 하면 큰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기원전 96년 법무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 사건입니다. 네로의 현조부(玄祖父)였던 그는 기원전 96년 법무관으로 시칠리아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노예가 멧돼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그 잔인함에 질타를 받았고, 훗날 그가 가이우스 마리우스에게 잔인하게 살해될 때도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죽음에 버



강태광 목사
(월드서비스USA대표)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시간 6시간부터 4일”

고 안드레 등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참수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반항한 노예,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의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반항한 노예란 주인을 죽이거나 비슷한 악행을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3차 노예 전쟁에서 스파르타쿠스를 따랐던 노예들이 십자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노예들을 처형했던 6천 개의 십자가를 로마 최속 고속도로인 아피아 가도(Via Apia) 변에 세웠다는

인물은 기둥에 박아 죽였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끝을 뾰족하게 깎은 다음 복부를 찢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이 사형법의 효과가 컸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정복한 장군의 세력을 과시하고 적군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의 원조이었습니다. 십자가형(Crucifixion)의 의미는 ‘나무, 벽, 바위 등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앗수르의 매달아 죽이는 처형법이 십자가형의 기

아 제국 십자가형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페르시아의 고관인 하만(Haman)이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일 계획으로 오십 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았습니까(에 7:10). 이것이 페르시아에 매달아 사형을 시키는 제도가 성행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규빗”이란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즉 약 40cm가 길이입니다. 오십 규빗은 20M나 되는 어마어마한 장대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발견되는 전

고 안드레 등은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참수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반항한 노예,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의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반항한 노예란 주인을 죽이거나 비슷한 악행을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3차 노예 전쟁에서 스파르타쿠스를 따랐던 노예들이 십자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 노예들을 처형했던 6천 개의 십자가를 로마 최속 고속도로인 아피아 가도(Via Apia) 변에 세웠다는

금가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과 멸시 그리고 모욕을 공개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시간은 6시간부터 4일이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을 받기까지 채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온 세상에 공개하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의 본질은 육체적 고통이 아닌 수치와 모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유대인의 역할 (롬 3:1-4) 찬 43장

왜 이스라엘에게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그릇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1-2)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먼저 구원주를 보내어 흠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구원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들 속에 영생의 표징인 할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일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잘 나타내었습니다. (3) 특권을 남용하여 민족주의로 치달은 그들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밝히 나타낸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4) 이것은 유대인을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롬 3:5-8) 찬 53장

하나님을 반역한 유대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가? 첫째, 그들의 불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6) 악인도 심판날의 적절한 도구로 쓰이듯이 이스라엘은 불신실하여 배은망덕했으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바꾸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적절한 도구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짐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참

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7)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건짐받음으로 영광을 돌리나 애굽인은 물에 빠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어코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마십니다. 셋째, 유대인의 반역 행위는 심판을 받습니다. (8) 유대의 반역은 주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악을 사용하시는 주의 지혜 앞에 두려움으로 섬깁시다.

수 해 아래 의인이 없다 (롬 3:9-18) 찬 40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의 상태를 논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해 아래에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부패합니까? 첫째,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11)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1)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그들의 생각과 기호를 바꾸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 돈, 쾌락,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세속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찾는 기능

이 완전히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12-18) 그러므로 주어진 일반 은총을 모두 악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그 속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열린 무덤같은 목구멍, 속이는 혀, 독사의 독같은 말이 저주와 악독으로 채워졌습니다. 남을 죽이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혼돈과 공허만이 계속됩니다. 해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가 있습니다. 그 실상을 알고 겸손히 살아갑시다.

목 인간의 전적부패성 (롬 3:19-20) 찬 28장

사도의 복음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또다시 어떻게 강조합니까? 첫째,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란 사도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안 그는 인간의 전적부패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를 잃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복음으로 나가는 주요 관문입니다. 이 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발견한 것처럼 복음은

죄인됨을 알 때 진정한 효력을 가져 올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가두었습니다. (19) 많은 선행과 전통을 거론하는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 진노를 피할 자란 아무도 없으며 절대 절망, 절대 저주에 있는 죄인의 상태란 지옥 자체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제1 조건이 된 것입니다. 셋째,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 속에는 없습니다. 복음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진의를 모르고 흑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있든지 우리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 의를 세우는 복음 (롬 3:21-22) 찬 23장

본문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21)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으로 죄가 무엇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 의(righteousness), 인(mercy), 신(faithfulness) 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 23:23)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모두 율법의 의에 근거한 것이고 율법의 631조항 역시 모두 이 의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의 죽음으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그 의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22)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하면 이 의를 소유하고 의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자의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복음의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복음의 의를 가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의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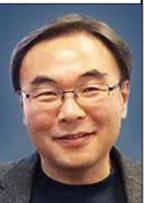
토 복음의 실상 (롬 3:23-30) 찬 9장

사도의 복음이 잘 요약된 본문은 세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 사실입니다. (23) 모든 사람의 범 죄란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개별적으로 완전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 죽음이라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죄인을 구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죄가 처리됩니다. (24)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속량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

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은 그가 나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하시러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두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천하에 없습니다. 셋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25) 이미 완성되는 구원 곧, 죄사함은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습니다. 행함으로 얻으려는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 곧, 그의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독교 교육 (22)

기독교 교육의 구성요소에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강조적인 구성요소 그리고 지원적인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교회의 본질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즉 리더들의 역할, 성경공부, 제자훈련, 선교, 음악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동참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반면에 강조적인 구성요소는 교회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한 분야나 하나의 구성원그룹을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는 가정사역, 청지기사역, 전도훈련사역, 선교비전사역, 직업안내사역, 학생사역 등이 있으며, 개교과 프로그램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각, 부모 자녀 간, 자녀 친구의 부모)와 의사소통, 이민자의 자녀양육, (자녀를 시작으로 하는) 가정 제자훈련, (이웃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제자훈련, 남성이나 여성을 위한 활동이나 소그룹 모임,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생활, 그리고 죽음과 장례.

강조적인 구성요소의 첫번째 예로서 가정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정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으로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문화를 구성하는 기반단위입니다. 각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정사역은 부부, 부모, 자녀양육, 노인, 독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말지 않은 과거에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들의 생물학적인 자녀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다양해졌습니다.

강조사역의 또 한 예는 청지기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절약하고, 돈을 투자하고, 돈에 관해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 6:9-13, 19-34; 7:7-12; 13:8, 23; 17:24-27; 18:23-34; 22:17-22; 23:23; 25:14-30, 34-40; 막 7:9-13; 12:41-44; 눅 6:30-38; 7:40-43; 8:1-3; 10:1-9, 25-37; 12:15-21; 12:22-34; 14:28-30; 16:1-13; 18:18-25; 20:9-16; 요 4:34-38).

- 자녀들 중 약 60%만이 생부모나 양부모와 살고 있습니다.
- 25% 이상의 자녀들이 편부모와 살고 있습니다.
- 아버지들 중 73%만 18세 이하의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 16%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 11%의 아버지들은 남들과 살거나 혼자 삽니다.
- 15세부터 17세의 미국 청소년들 중 절반 이하가 생부 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 미국 심리학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초혼의 40-50%가 이혼으로 끝납니다.

돈이 가치중립적이라 선호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돈에 충성하게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돈이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마 6:19-21).

교회는 회중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역자들은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부 사역자라 할지라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와 가정을 모두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을 따로 모아 부모들로부터 분리된 사역을 청소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부 사역자의 역할은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사역자나 다른 사역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청지기사역은 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크리스천 청지기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청지기사역은 다른 교회나 기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국내외의 선교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지기사역을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지기사역의 목적은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이 청지기사역을 지지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청지기사역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청지기사역은 세가지의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와 내용의 가르침, 방법의 훈련, 그리고 지원과 격려의 공급.

그 외에도 가정사역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교실, 이혼 후 회복(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대처 방법을 공유), 편부모,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가족, 청소년 문화이해, (부

가정사역과 청지기사역 이외에도 많은 사역이 강조적인 구성요소에 속합니다. 강조적인 구성요소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일부를 부각시키는 역할과 교회 구성원그룹들의 독특한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구성원의 분포에 따라 필요에 적합하도록 강조적인 구성요소에 속한 사역을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헝가리

"어? 거의 동시대에 살았네! 선교사 닥터 홀의 가족과, 합수브르크가'의 왕가들이..."

닥터 홀 선교사의, <조선 회상>이란 책을 읽고, 한 생애를 나역시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많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비엔나 근방의 황실 사냥 별장이 있었던 "마이엘링(Mayeling)"이란 곳을 갔습니다. 그곳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제국이었던 합수브르크 왕가의 엘리자베스(씨씨공주)사이에 태어난, 외아들 루돌프 황태자가 벨기에 스테파니 공주와 정략결혼을 했지만, 결국 30살의 나이로 17살 된 연인과 죽음을 선택했던 슬픈 인생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 화려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았으나, 비운으로 끊임없이 접철된 삶을 살다 간 왕족, 인생의 멜랑주! 멜랑주(Melange)는 혼합물, 뒤범벅, 섞여 있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조선회상>을 읽으면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오마주와 함께 좀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이름 없이 쓰러져가는 한 무명용사가 멀리 링컨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닐까? 하지만 그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 후, 헝가리 전국 집시 교회 연합 예배가 있어서 우리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깔끔히 정장한 안내자들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자는 바로 전에 우

리 '거리의 교회'의 노숙자였습니다. "줄리(Gyula)!" "팻(Pal)!" 헝가리에서 저의 이름으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며 서로 뿌시뿌시(포옹)를 하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든지! 줄리는 선교 단체의 어엿한 스텝으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부다페스트 남부역, 노숙자 무리 중에서 있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주님! 제가 닥터 홀과 같은 그런 탁월한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해도, 저희 내외를 통해 복음을 듣는 거리의 형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섬기니, 이



회상)의 원제목은 <아시아: 한국에서 청진기로>입니다. 물론 의사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런 제목을 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쟁(세계 2차 대전)이 나자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몰래 라디오에 청진기를 대고 뉴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자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 선교사는 1891년 31살

님 오실 그날에 하늘의 별처럼 빛날 조선의 선교사들...

그리고 보니 처음 아버지 '닥터 홀'이 조선 선교사로 한국에 간지 딱 100년 후인 1991년에, 한 한국인 선교사 가족이 헝가리 선교사로 부다페스트에 들어온 셈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의 발자취 100년 후, '한국인 선교사' 가 간 곳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 맞죠?"

그렇게 벅찬 감동으로 본당으로 들어가니, 거기엔 우리가 이전에 단기선교 팀을 데리고 공연 사역을 했던 코즈마 교도소와 바츠 교도소에서 만났던 교정 목사님들, 또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장을 하신 '서보다니엘' 목사님도 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목사님이 교도소의 모범수들, 또 집시 교회의 청년들을 인솔해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그곳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나와서 간증과 찬양을 했습니다. 집시로서 차별받고 피해의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 스토리들...

닥터 '셔어드 홀'의 책 <조선

에 조선 선교사로 와서,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한 자들을 돌보다가 4년 만에 발진티푸스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자의 어머니 '로제타' 의사 선교사는 유복녀로 낳은 딸마저 전염병으로 천국에 보내야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 '셔어드 홀' 의사 선교사는 아내 '매리언' 의사 선교사와 함께, 조선에서 폐결핵 퇴치를 위한 의료 사역, 요양원 설립,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군에 의해 1940년에 재판을 받고, 조선에서 추방되어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70살에 은퇴한 그는, <조선 회상>과 <인도 회상>이란 기록을 남기고, 98세인 1991년에 소천했습니다. 닥터 홀 가족의 삼대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있습니다. 주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2)

'아! 이제 나는, 우리 부부는 헝가리 선교사로서 뭘 남기고 갈 수 있을까? 많은 묵상과 기도, 회개, 비전을 갖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미션을 깨닫습니다.

'닥터 홀 선교사 가족이 한국의 결핵을 퇴치했다면, 우리 헝가리의 집시들을 깨우는 일이다!'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슬럼프의 집시들을...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인생! 비록 기쁨과 슬픔, 고통의 멜랑주라 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Oneness),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김홍근&서명희 헝가리 선교사 mylovehungary@hanmail.net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아시아 B국

▲ 종족명 투라 종족

▲ 인구 약 13만명

▲ 종교 이슬람 99.99%

▲ 기타 투라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함, 이슬람교는 민족적 정체성

▲ 프로젝트 소개 투라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2012년 시작되어 2019년 5월 현재 성경 전체의 41.3%가 초역되었고 신약은 완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7년 성경전서 완역, 2029년 '투라어 성경전서'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복음에 적대적인 투라족의 강한 이슬람 신앙과 현지 정부의 반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투라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감시와 위협적인 상황은 2018년부터 더욱 심해졌으나 주의 보호 속에 여전히 진행 중이다.

- ▲ 기도제목
1. 현지인 번역자를 보호해 주시고 성경을 완역할 기회와 지혜를 주시도록
 2. 번역된 투라어 성경을 전해 주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지만 성경말씀이 전해져서 투라족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도록
 3. 투라족이 '투라어 성경 전서'의 가르침 위에 투라족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도록
- (GBT 성경번역선교회)

책 소개



미주한인재단 LA 발간/이상명 대표편저 '길 위에 길을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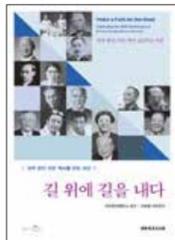
미주한인 이민역사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 20주년을 맞는 2023년은 미주 한인 역사의 뜻깊은 해이다. 미주한인재단 LA(대표 이병만 장로)에서는 이민 선조들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품과 출중한 재능, 탁월한 리더십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 주류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한민족의 우수한 위상

을 날린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길 위에 길을 내다'(대한 기독교서회)를 출간했다. '미주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의 대표 편저로 헌신한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는 "인물의 '영웅화'에 취지가 있지 않다"고 말하며 "코리

안-아메리칸, '세계인'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는 물론 조국과 미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서술하는데 집중했다. 참 지도자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한인 1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표와 롤모델로 16인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서에는 하와이 한인 이민 여성, 천연희, 심영신, 이금례씨의 '질곡의 삶 그러나 희망'을 비롯해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이대위, 김마리아, 백일규, 유일한, 새미리, 김계용, 임동선, 백남준, 김은국, 이휘소, 강영우,

홍명기씨의 생애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집필은 옥세철, 설위원, 유석종 목사, 이상명 총장, 이성숙 시인, 이에진 작가, 이종윤 고문(도산기념사업회), 임윤택 교수, 최윤정 교수 등이 맡았다. 책 구입처: 미주내 각 서점.



(이성자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 | |
|-----------|------------|---------|
|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국방대학원 |
| 교육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 상담심리대학원 |
| 신학대학(원) |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세계한인기독교인론협회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장려상 김진혜 장로 (브라질 쌍바울로 연합교회)

한 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세계한인기독교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가 매년 주최하는 독후감 공모전 추천 책들의 제목을 훑어봤을 때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좀 거슬렸다.

“한 달란트”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정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의 주인공은 영락없이 게으른 자 곧 하나님이 저주하신 죄인으로 내 마음에 못을 박으셨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용기로 이런 제목을 선정했는지 호기심이 서서히 오르면서 한국에 나가 있는 딸에게 이 책을 부탁했다. 우선 한 분이 아닌 부부 선교사님의 프로필을 대하니 막강한 이력서를 소유한 교수로서 또한 과학자로서의 신분은 이 책의 제목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20달러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는 간증은 그저 때때로 자주 들은 고백이고 유학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선 별로 큰 감동거리가 되지 않았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그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고 특히 노숙자들을 상대로 희생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기독교인 외에서 여기 브라질에서 가끔 접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었다.

몇 쪽을 지나 어린 시절의 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섬뚱 멈춰버렸다. 파라과이! 파라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브라질의 이웃 나라가 아닌가! 상파울루에서 버스로 16시

간이면 국경 도시인 Ciudad del Este에 도착한다. 전 세계 물품들을 낚은 세금으로 브라질로 밀수하는 악명높은 그곳에서 박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단 말인가!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의 고향 지인들과 밖에 유명 인사들이 나사렛이란 그따위 동네에서 인물이 내 마음속 구석에서 들렸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가게 된 동거나 “꼬레아”라고 불리며 눈 찢는 시늉을 봐야되는 그 심정, 누구보다 내가 너무나도 격었고 체험했던 나 자신의 삶이다. 10살 때 한국에서 막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기 전에 브라질로 이민을 왔으니 어쩔 박성현 선교사님의 이민 초기의 생활이 나와 똑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식료품점을 하셨다면 우리 아버지는 조그만 과일 구멍가게를 하셨고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몸과 영의 힘든 나날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 해서든 공부에 키시겠다는 욕심과 오기로 결국 그토록 원하셨던 대학 법대에 내가 합격하는 바로 그날 병원 침상 위에 걸터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내 품에서 숨을 거두셨다.

우리 삼남매 중에서 공부에 좀 열심이었던 난 브라질의 검사가 꿈이었고 주위 사람들의 동의하는 말에 나 스스로도 공부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5년 공부를 가까스로 마치고 졸업식에 이어 변호사가 되기 위

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왜 이렇게 박선교사님 학창 시절의 삶이 나의 그때 상황과 똑같을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의 과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되새긴다. 사립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그때 당시 브라질 이민자들의 유일한 재봉업에 합류해 종사하시면서 형편상 공부를 포기했던 나에게 늘 미안함과 죄책감의 눈치를 비추셨다. 태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당했던 나의 모습이 어쩔 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았을지 모르겠다.

몇 년이 흘렀을까 대학의 꿈을 잊은 채 그럭저럭 일과 교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신하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긴 여행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고등교육 인증서를 따냈다. 나를 무시하는 파라과이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가정의 경제를 염려함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분함과 오기로 가득 찬 나 자신에게 아직 걸음마의 수준에 까우똥대는 믿음에 불길을 일으켰다.

어떻게 박선교사님은 이 와중에도 교회의 리더로서 더더욱 청년부 회장으로서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까... 자칫 담배, 술, 도박 등으로 한 인생을 송두리째 내팽개칠 수 있었을 그 순간들을 무엇으로 막아내셨을까...공장 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교회에

들러 저녁 9시부터 두세 시간씩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글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감히 나의 옛날 시절을 박선교사님의 지속적인 기도 의 삶이랑 비교할 수 있는가! 난 말의 재능도 없고 그다지 좋은 머리의 소유자도 아닌 데가 믿음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 않은가. 한 가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끝없는 나를 향한 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다음 이스라엘로. 유대인의 고향인 그 곳에서, 더군다나 역사적, 종교적 시각으로 불편한 팔레스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모두의 구세주로 소개하고 가르치셨던 선교사님의 사명의 한계는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신 사명에 한계가 있는 걸까...

그때 그때마다 다가온 고비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마 7:13-14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받아드리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에 나 자신에게 놓였던 수많은 문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님 부부에게 약속하신 계획이라면 나의 결혼 또한 한없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를 잃고 방향의 길을 걷기 시작한 무렵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 현재 슬하에 세 딸과 손자 둘의 할아버지가 된 나는 그 어떤 영화의 시나

리오보다 반전과 반전에 엮기적인 오늘의 삶을 사는 장본인 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첫 부분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끝없는 행진이었다. 예루살렘 쪽의 유대인과 베들레헴의 팔레스타인간을 오가면 받은 사명을 감수했다면 난 전혀 관심없는 옷장사로 새 가정을 꾸려가야만 했다. 내 나름대로 가장이란 책임을 완수하고자 파라과이에서 전자품을 밀수로 사들여 판매하며 아내의 돈벌이에 보탬이 되고자 원했던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방향을 틀어 놓으셨다. 박선교사님의 언어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 그나마 남을 가르치는 재능을 허락하시어 늦게 그 길을 열어 주셨다. 법대를 졸업한 후 생계를 위해 물어버린 인문과에 대한 열정을 30년을 훌쩍 넘어 때마침 찾아온 교육학을 다시 공부하고 곧이어 브라질 포아 괴를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셨다면 브라질에 와 찢어진 눈의 할아버지가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포어를 가르침이 어찌 다르겠는가.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브라질 고등학교, 성인, 어린이들까지 가르치게 됐다. 언제부터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는지 미처 알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뒤를 돌아본다면 50여 년을 뒤로한 채 한국에서 부모님 따라 비행기에 올랐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 책을 거진 다 읽어 내려갈 때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을 보았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과 하인이었던 본인들만 아는 은밀한 비밀, 이 책은 끊임없는 비밀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두 선교사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밖에 나를 거울에 비춰본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브라질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만약 눈치챘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무엇으로 구체화해야 할지...책을 덮기 전 다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학대학원에서, 남미인들에게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다가가는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님은 나의 “다짐”을 동사 현재로 끌어올린다.

서로 달라야만 가능한 “하모니”... 나의 지금까지의 삶, 이 이상 더 달라질 수 있을까?.....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전담 직원을 파견해 긴급구호 키트 배분을 비롯해, 향후 일상 복귀를 위한 재건을 돕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은 기아대책(KFHI), 국제기아대책(FH)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감리회)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 KAFHI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

Icon of a bread box. \$50. 5인 가족 5일치 식량. FOOD KIT (식량형키트)

Icon of a box with a cross. \$100. 5인 가족 피복/세면도구 등.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Icon of a tent. \$200. 5인용 안전/방한 텐트 지급. SHELTER KIT(셀터형 키트)